

# 추석 앞두고 농산물 절도범 활개

농작물 수확 시기를 앞두고 과일과 야채 값 급등을 노린 농산물 절도범 들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과 맞물려 농산물 절도가 농민 등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전남의 모든 경찰서가 집중적으로 수사 및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206건의 농작물 절도가 발생, 2억34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절도는 지난 2011년 372건이 발생, 피해액만 11억16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434건의 농작물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번거로운 신고하지 않는 농민들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농작물 절도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추·마늘 등 농작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채씨는 지난달 8일 새벽 0시경 해남군 문내면 양모(여·60)씨의 비닐 하우스에서 24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240kg)를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경찰은 특히 쌀 수확기가 다가올수록 농작물을 노린 절도범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경찰서마다 기획 테마로 선정, 수사 및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영섭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농민들이 애지중지 1년 동안 키워온 농작물을 도난당해 허탈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검거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남경찰은 최근 농촌지역을 돌며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영장부터 넣고보는 광주·전남경찰

## 구속영장 발부율 전남 65.8% 전국 최하 광주도 71% ... 전국 평균에 못미쳐

광주·전남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치밀하지 못한 수사에 따라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 하다. 구속 영장을 신청해 1만2702건(발부율 72.8%)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발부율만 놓고 보면 수사 효율성만을 고려, 신청하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의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65.8%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다. 경찰청을 들어 전국적으로 1만7449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1만2702건(발부율 72.8%)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발부율만 놓고 보면 수사 효율성만을 고려, 신청하

게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그나마 전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0년 82.2% ▲2011년 74.7% ▲2012년 67.6%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369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71.3%인 263건만 발부돼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 지역 경찰서 중 상반기(1~6월) 구속영장 발부율은 광산경찰청이 71.8%로 가장 높았다. 광산경찰청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1년 57%, 2012년 60.9% 등에 불과했다. 발부율이 낮다는 건 기각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과도하게 영장을 신청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 일선 경찰서도 비슷하다. 나주경찰은 지난 상반기 46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6건(56.5%)만 발부됐고 나머지는 검찰(11건), 법원(7건)에서 각각 기각됐다. 나주경찰의 지난해 영장 발부율은 고작 48.7%로, 신청한 영장 2건 중 1건이 기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여수도 지난 상반기 61.4%의 발부율에 머물렀고 광양(65.2%), 목포(68.9%) 등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무원노조 단합대회 중 숨겨

지난 31일 오후 1시20분경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 인근 천왕샘 부근에서 광주시 6급 공무원 이모(44)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씨는 심장마비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씨는 이날 노조 운영위원 15명과 함께 단합대회를 위해 지리산 등반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도망치다 흘린 피 때문에 '달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도주 중에 남긴 혈흔 때문에 경찰에 달미.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2)씨는 지난 31일 새벽 5시경 광주시 동구 동명동 A여성전용고시원 3층에 사는 A(여·22)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A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뒤 달아났다는 것. ○...이씨는 A씨가 저항하자 3층 창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내려온 뒤 1층으로 뛰어내리면서 팔꿈치를 다쳤는데, 경찰은 1층 바닥에 떨어진 이씨의 혈흔을 추적해 이씨를 검거. /이종형기자 galee@

## 벌초때 벌조심

완도서 60대 사망 ... 사고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랐다. 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9시20분경 완도군 군외면 교인리 한 야산에서 박모(66)씨가 벌에 머리를 쏘인 뒤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11시50분께 보성군 노동면 금도리에서 묘

지 벌초작업을 하던 손모(64)씨 등 2명도 벌에 쏘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벌에 쏘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긴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고 산에 오를 것”을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락공원 미리하는 성묘 1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묘지에서 시민들이 추석(19일)을 앞두고 미리 성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영산강 살리기 업체 오니 무단반출 40억 챙겨

## 광주지검, 건설사에 “폭로하겠다” 협박 1억 뜯은 50대 기소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1일 회사의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건설사 전 직원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G건설사의 대표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오니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영산강 살리기 생태하천 사업의 시행사 가운데 한 곳이다. G사의 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3월 해고된 뒤 양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천의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섞어 탁도와 탁수처리 공

정을 거쳐 적당량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김씨는 트집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6개월 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니를 나주 옥정지구 등에 반출해 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G사가 시행한 옥정지구의 경우 산성도양에다 염해까지 겹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농사를 망

쳤으며, 나주농업기술센터가 올 초 토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수소는농도인 pH가 4에 불과하고 염도가 4.1~10.2dS/m(기준치 1.56ds/m)에 이르는 등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농민들의 보상요구가 거세지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이나 부실시공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묵인이나 결탁, 직무유기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휴대전화 낚시 문자' 4억원 챙긴 30대 구속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낚시 문자'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4억원대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강모(35)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대구 수성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습니다'라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들에게 사진 1장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수신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무선 인터넷에 접속되게 해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모두 13만 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2013년 10월 01일

###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b>지상5층</b>	501호 내과 502호 치과	<b>지상6층</b>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b>지상7층</b>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b>지상8층</b>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b>지상9층</b>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b>지상10층</b>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b>지상11층</b>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b>지상12층</b>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 시네마(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라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1층 브랜드커피숍 계약완료! 2층 레스토랑 카페 계약완료!

###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b>지하1층</b>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b>지상1층</b>	롯데리아(맥도널드) 70P
<b>지상1층</b>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b>지상2층</b>	PC방 203P
<b>지상1층</b>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b>지상2층</b>	한정식 387P
<b>지상1층</b>	미용실 23P	<b>지상3층</b>	일식 387P
<b>지상1층</b>	베스킨라빈스 44P	<b>지상4층</b>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